

Style

조선일보

FALL/WINTER
2019





KR.MAXMARA.COM

MaxMara



a journey with Max Mara

이탈리아 고유의 장인 정신에 기반해 세련된 디자인과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막스마라. 전통과 혁신, 그리고 창조를 지향하는 막스마라의 여정은 계속된다.



69년간 이어온 장인 정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태생의 막스마라. 브랜드가 첫걸음을 내딛은 것은 1951년이다. 19세기 중반 드레스 숭을 운영한 증조할머니 마리나 리날디(Marina Rinaldi)와 재단, 재봉을 가르치던 어머니 줄리아 폰타네시 마라모티(Giulia Fontanesi Maramotti)에게 영향을 받아 일찍이 패션 사업에 눈을 뜬 아킬레 마라모티(Achille Maramotti). 그가 우아하고 정교한 프랑스 오트 쿠튀르에서 영감을 얻어 코트를 제작한 것이 막스마라의 시작이다. 1964년에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레지오 에밀리아에 첫 매장을 열었고, 밀라노를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장하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여성복 브랜드로서 입지를 굳혔다. 매일 입을 수 있는 럭셔리를 지향하며, 도시 여성의 지적인 삶의 표현이라는 DNA를 바탕으로 품질 높은 소재와 완벽한 재단, 섬세한 제조 과정을 거쳐 코트, 재킷, 슈트, 드레스 등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막스마라가 특유의 견고한 실루엣과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재단, 재봉 등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숙련된 기술자들이 각각의 라인을 책임지고 이를 현대 아우르는 매뉴팩처 생산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원단 연구원이 알파카, 캐시미어, 베이비 캐멀, 실크 등 최상의 소재를 선별하면 재단사가 정교하게 재단을 하고, 재봉사들은 특수 바늘을 사용해 섬세하게 마무리한다. 그리고 완성 후 레지오 에밀리아 지역을 떠나기 전, 전문가들이 제품을 일일이 검사하는데, 특유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거쳐야만 비로소 막스마라 제품으로 탄생한다.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막스마라는 2012년 패션 그룹 인터내셔널(Fashion Group International, FGI)이 주관한 제29회 나이트 오브 스타즈 시상식에서 브랜드 헤리티지상과 패션 그룹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다.

막스마라가 제안하는 우아한 여성상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재 개발과 실루엣 연구를 통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브랜드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막스마라. 창립자 아킬레 마라모티가 첫 컬렉션으로 선보인 캐멀 코트와 선명한 레드 슈트는 고급스러운 디테일과 세련된 감성으로 당시 의사 혹은 변호사의 아내와 같은 새로운 중산층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후 코트와 슈트는 브랜드의 상징적인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했고, 마라모티는 처음으로 미국식 대량생산 방식을 이탈리아 패션업계에 도입해 여성의 여러 체형을 고려한 기성복 치수를 최초로 체계화했다. 절제된 스타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막스마라는 “어떻게 다양한 소비자를 유입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해 1965년, 당시 자유분방한 유스 컬처에서 영감을 받은 막스마라 팝 컬렉션을 선보였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젊고 캐주얼한 스타일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 막스마라는 1969년 막스마라 팝 컬렉션을 재정비해 스포트막스 라인을 론칭했다. 정교한 테일러링과 스포티즘 요



소를 결합해 직장에서 일상생활에 이르는 다채로운 상황과 장소에서 입고 즐길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 마라모티는 1971년 잡지 <아리아나(Arianna)>와 나눈 인터뷰에서 “패션과 보그의 차이점에 대해 정의하자면, 패션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데 반해 보그는 유행을 지향하는 단이다. 패션이 막스마라라면 보그는 스포트막스다”라며 스타일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전했다. 막스마라는 1970년대 중반 칼 라카펠트(Karl Lagerfeld), 루치아노 소프라니(Luciano Soprani), 나니 스트라다(Nanni Strada) 등 유명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신선한 디자인을 주기적으로 선보이며 클래식에 대한 열린 태도를 유지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1981년 디자이너 앤 마리 베레타(Anne Marie Beretta)가 클래식 트렌치코트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울 캐시미어 코트는 막스마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기모노 소매와 허리를 조이는 벨트가 없는 일직선의 투박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출시 직후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생산 당시 부여된 상품 번호를 차용해 101801이란 이름을 붙인 이 코트는 현재까지 막스마라의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월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선보인 2019 F/W 컬렉션도 주목할 만하다. 캐시미어와 개버딘 등 부드러운 면서도 견고한 소재로 제작한 코트와 재킷, 팬츠 슈트를 중심으로 실루엣은 정갈하고 편안한 느낌을 유지하되 슬릿 디테일이나 미니스커트로 다리 라인을 강조해 특유의 포말하고 매니시한 느낌을 중화했다. 팔레트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러로 통용되는 캐멀과 베이지 등 자연스럽고 익숙한 어스 컬러를 중심으로 옐로우 블루같이 경쾌한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다. 하트 모티프나 숫자같이 기하학적인 요소를 적극 차용한 프린트로 시각적인 효과를 더한 룩과 허벅지 높이의 사이하이 부츠, 오버사이즈 머플러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컬렉션을 보다 풍성하게 채웠다.

전시 <Coats!> & BAI 막스마라 아카이브

감도 높은 비주얼을 통해 세련된 여성상을 전하는 막스마라의 광고 캠페인은 세계적인 사진작가들과 작업해 완성한다. 막스마라는 1950년대 사진가 사라 문(Sarah Moon)과 함께한 모노크롬 코트의 첫 광고 이미지를 필름도 피터 린드버그(Peter Lindberg), 파브리치오 페리(Fabrizio Ferreri) 등 지명한 사진가, 스타일 디렉터와 함께하며 유수의 패션 사진 작품을 남겼다. 이러한 작업에 참여한 모델은 캐롤린 머피(Carolyn Murphy)를 비롯해 신디 크로퍼드(Cindy Crawford) 그리고 최근 밀레니얼 Z 세대에게 각광받고 있는 지지(Gigi)와 벨라 하디드(Bella Hadid) 자매까지, 캠페인 아카이브를 통해 당대를 대표하는 스타일 아이콘도 엿볼 수 있다. 또 막스마라는 글로벌 이벤트 <Coats!> 전시를 통해 브랜드의 상징적인 코트 아카이브와 광고 사진, 아트 협업 제품을 회고하는 기회를 마련해 전 세계 소비자와 소통하고 있다. 베를린, 베이징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를 거쳐 지난 2017년에는 <Coats!> 전시를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마련한 7개의 전시 공간에서 브랜드의 상징적인 101801 코트 90벌을 비롯해 창립자 아킬레 마라모티의 비전과 열정, 막스마라의 실험 정신, 이탈리아의 노하우 등을 주제로 꾸린 흥미로운 공간으로 관람객을 안내했다. 칼라카펠트 등 막스마라와 함께한 패션 거장들의 스케치와 리처드 아베돈(Richard Avedon), 아서 엘고트(Arthur Elgort)와 같이 전설적인 패션 사진가가 작업한 광고 캠페인 등을 전시해 브랜드의 유산을 소개하고 한국 고객, 문화 예술인과 소통하며 막스마라의 철학을 전했다. <Coats!> 서울 전시를 기념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안 그리피스(Ian Griffiths)가 한국의 유거그루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서울 스페셜 룩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막스마라는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의 줄리아 마라모티 거리에 위치한 1910년대에 지어진 스타킹 공장을 개조해 BAI(Biblioteca e Archivio di Impresa)라는 이름 아래 브랜드의 창의적인 역사를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50년이 넘는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과 자료실을 통해 작품부터 컬렉션 제작에 영감을 주는 요소를 진열했고, 약 30만 개 이상의 컬렉션 의상과 역대 광고 캠페인, 3백50권 이상의 최신 잡지가 구비했다. 앞으로도 막스마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축적한 방대한 아카이브를 통해 전통을 계승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으로 창조에 대한 브랜드의 비전을 전할 예정이다. **에디터 이윤희**



in the name of MaxMara

막스마라 북미 리테일 부문 부회장이자 글로벌 앰배서더 마리아 줄리아 프레지오스 마라모티는 브랜드 창립자 아킬레 마라모티의 손녀로, 패밀리 비즈니스의 세 번째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다.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이벤트를 위해 방한한 그녀에게 막스마라와 새 스토어, 그리고 동시대 여성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photographed by kang pil mo*



Style Chosun(이하 S) 2017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규모 전시 (Coats!) 이후 2년 만에 또 다른 이슈를 들고 서울을 찾았다. 바로 한국 최초의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20여 년이 지나 이른 결과물이다. 마라모티 가문의 일원으로서 소감이 어떤가? **Maria Giulia Prezioso Maramotti(이하 M)** 우선 단독 스토어를 오픈하게 돼 영광이다. 한국 소비자와 함께 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들인 노력이 구체화된 결과라 매우 자랑스럽다.

S 동시대 여성을 대변하는 브랜드에 몸담고 있는 만큼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남다를 것 같다. 서울 여성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 **M** 패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 코트를 무척 즐겨 입어 그들의 스타일과 막스마라의 DNA가 맞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 나를 늘 흥분케 한다.

S 마라모티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당신에게 막스마라는 숨쉬듯 자연스러운 존재였을 테지만, 그 최초의 기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를테면 유년 시절 당신의 추억 속에 남아 있는 특별한 이미지나 장면 같은 것 말이다. **M** 소녀 시절 컬렉션 쇼를 보러 갔던 것, 그리고 재단 작업실과 다림질 기계에서 나는 고유의 냄새, 패브릭 터미에 둘러싸여 있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다. 항상 패브릭과 디자인이라는 아이디어 속에서 성장한 것 같다.

S 막스마라의 창립자이자 할아버지인 아킬레 마라모티가 당신에게 남긴 가장 큰 정신적 유산은 무엇인가? **M** 진정한 아름다움과 좋은 품질의 의미를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를 성공으로 이끈 사업가로서의 자세, 일에 대한 진정함, 여성복을 향한 열정, 오래도록 변치 않는 가치를 창조하는 것.

S 막스마라는 브랜드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예술 분야 후원에도 열정적이다. SNS 계정을 보니 당신 또한 이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지닌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일의 비전이 일치할 때 얻는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것 같다. **M** 정말 듣기 좋은 말이다. 막스마라와 예술은 늘 유기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우리 브랜드나 나 개인에게도 예술은 열정 그 자체가기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예술과 연계하면 더 큰 흥미와 자극을 불러올 수 있다. 처음부터 큰 애정을 갖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의 사생활과 크게 분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얽혀 있다.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S 여성 권의 증진을 위한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막스마라가 2003년부터 후원해온 WIF 크리스탈 + 루시 어워즈는 할리우드에 만연한 성차별 문제를 완화하고 여성의 창작 활동을 양적,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여성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는 점에서 깊이 감동했다.

M 할리우드에서 일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새로운 페미니즘의 물결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인 약 17년 전부터 이러한 지원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 무엇보다 이러한 여성의 역량 증진(empowerment)은 긍정적인 실용주의(pragmatism)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투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진실을 지키고자 한다.

S 막스마라는 여성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존재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당신이 정의하는 아름다운 여성은 어떤 모습인가? **M** 여성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사랑할 때 비로소 아름다워진다. 의복은 내면의 힘과 에너지를 확장하고 강화할 때 나타나는 표현의 일부다.

S 막스마라는 그 어떤 브랜드보다 충성도 높은 고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곳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를 찾은 막스마라의 소비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M** 여성이 막스마라를 입으면, 그 자체가 특별한 스토리가 되기에 우리 브랜드와 금세 사랑에 빠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곳 서울의 새로운 스토어를 찾는 고객들이 우리가 어떤 브랜드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또 피부에 직접 닿는 기본 좋은 느낌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한다. *에디터 이혜미*



palazzo di MaxMara

아직 접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한번만 입어본 사람은 없다는 막스마라 코트, 지금 바로 떠나고 싶게 만드는 워렌드 컬렉션 팬츠와 니트, 가볍고 실용적인 더 큐브 컬렉션 재킷. 이외에도 막스마라의 컬렉션을 가장 빠르고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막스마라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다.

서울과 하나가 되는 스토어

막스마라 매장은 단순히 상품을 팔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공간이다. 1967년 밀라노 코르소 비토리오 에마누엘레(Corso Vittorio Emanuele)에 숨을 쉰 때 의류, 가방, 신발이 자유롭게 섞인 디스플레이를 선택해, 당시에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공간을 채우며 오늘날 패션 스토어 콘셉트의 선구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아방가르드한 공간에 잘 어울리는 여러 디자이너의 장식물을 매치해 시선을 끌기도. 패션 하우스가 한 도시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 현재 고객 외에도 더 많은 잠재 고객이 있다는 확신, 제품은 물론 브랜드의 문화와 철학까지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특별한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썩 괜찮은 지리적 위치 등 많은 것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내에서 첫 번째로 선보이는 막스마라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는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이다. 국내 패션을 선도하는, 다 시금 주목받고 있는 청담 패션 거리에 위치한 이 스토어의 디자인을 담당할 건축가는 두치오 그라시(Duccio Grassi). 건물 정면에 시원하게 창을 내 독특하고 깔끔하며 투명한 느낌을 강조했다. 핸드메이드로 제작한 브라스 장식은 인상적인 특별한 외벽, 자연석과 오크우드, 에칭 처리한 철 소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광택이 낮과 밤 모두 다른 빛을 내 멋스럽다. 입구와 일부 벽면은 이탈리아 왕족의 저택에 사용하던 고급스러운 체포(ceppo) 스톤으로 제작했고, 매장 내 바닥은 오크우드로 마무리해 편안한 거실 같은 느낌을 살렸다.

패션을 리드하는 공간

플래그십 스토어는 300㎡ 규모의 1층 매장으로, 이 공간에 색션을 나누어 밀라노 패션 위크 기간 런웨이에 오른 패션쇼 라인 막스마라 스텔라타(Sfilata)를 포함해 동시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사랑받는 최고급 수트 컬렉션 사토리알레(Sartoriale), 워라벨이 가능한 완벽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레저(Leisure), 실용성에 스타일까지 겸비한 S' 막스마라(S' Maxmara) 등을 디스플레이했다. 이외에도 프리미엄 액티브 아우터 컬렉션 더 큐브(The Cube) 컬렉션과 젊고 활기찬 스포트맥스(Sportmax), 그리고 여기에 매치할 수 있는 핸드백과 슈즈 및 아이웨어 등 다양한 액세서리까지 갖추어 다채로운 막스마라 컬렉션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듯. 또 막스마라의 한국 온라인 스토어에서 선보이는 서울 익스클루시브 캡슐 컬렉션도 경험해볼 수 있다. 막스마라가 선보이는 이 다양한 라인은 각기 다른 세계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일상에서의 갈망을 채워주기 위함이다. 유행만 좇지 않고, 그렇다고 고루하지도 않은, 트렌디와 클래식 사이에서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막스마라는 연령과 외모가 다양한 서울 고객을 만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문의 02-511-3935 *에디터 정려윤*



화사한 옐로 컬러 롱 카디건, 모헤어
싱글브레스트 재킷, 아너로 메치한
바진 울 터틀넥과 스카트, 나일론 소재
옐로 타이즈, 크로카다일 패턴을 엠보싱
처리한 레더 부츠 모두 **막스마라**.

우아한 오버사이즈 핏
캐시미어 & 캐딜 헤어 코트와
롱스카트, 바진 울 터틀넥,
크림색 부츠 모두 **막스마라**.



Elegant, always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막스마라 우먼' 그대로의 최지우.
2019 F/W 룩을 입고 뷰파인더 앞에 선 그녀의 어느 순간들.
photographed by mok jung wook

카다란 피크트 리넨과
직선적 테일러링이 멋스러운
루이저 코트, 케일 헤어 소재
싱글브레스트 재킷과 크롭트
팬츠, 심플한 블랙 울 터틀넥
모두 **막스마라**.



입피카, 바진 울, 실크를 혼방한 부드러운 텍스처와 포근한 실루엣, 선명한 블루 컬러가 매력적인 테디베어 코트 **막스마라**.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선보이는
서울 익스클루시브 캡슐 컬렉션
스웨트셔츠, 함께 레이어드한
터틀넥, 블랙 미니스커트와
부츠 모두 **막스마라**.



*101801 코트를 디자인한 마담 베레타의 스캐치, 칼 라가펠트의 크로키, 알라스트레이트 브루넬리의 삽화 등 브랜드와 협업한
여러 디자이너의 작업물을 믹스한 감각적인 프린트가 돋보이는 서울 익스클루시브 캡슐 컬렉션 패디드 실크 다운 코트, 블랙 터틀넥과 스커트, 부츠 모두 **막스마라**.

지퍼 장식의 레더 라이닝과
벨트를 더한 서울 익스클루시브
캡슐 컬렉션 벨트 백 **막스마라**.

시원스러운 모티브와 레퍼링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 익스클루시브 캡슐 컬렉션 스웨트셔츠와 터틀넥 모두 **막스마라**.





입체적인 실루엣의 캐주얼 헤어 케이프 코트, 캐주얼 컬러 울 터틀넥, 자연스러운 주름이 멋스러운 레더 부츠 모두 **막스마라**.

여유로운 후드와 빅 포켓
다테일로 페마인 무드를
강조한 캐시미어 소재 마블린
코트, 스트레이트 핏 울 팬츠
모두 **막스마라**.

문의 **막스마라** 02-511-3935

헤어 **이혜영**
메이크업 **이지영**
스타일리스트 **노광원**
에디터 **이혜미**





seoul exclusive
Capsule Collection

SEOUL 2019 레터링을 새기고 특별한 라벨을 붙였다. 한정 수량이라 더욱 특별한 이 에디션은 9월 3일부터 막스마라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와 e-부티크(kr.maxmara.com), 두 곳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 마티 방라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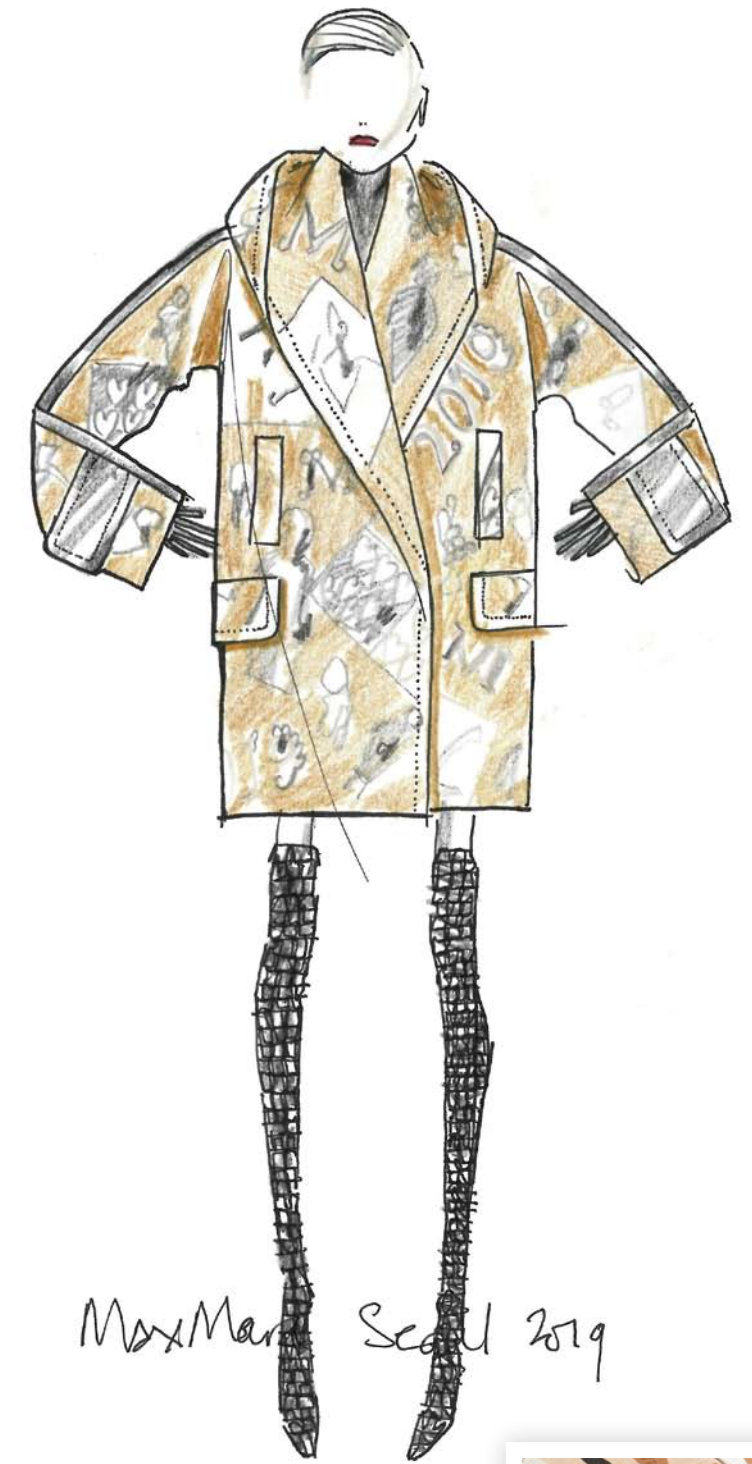
후디드 실크 다운 코트
 4백58만원 막스마라.



COAT

서울 익스클루시브 캡슐 컬렉션의 주요 모티브인 막스마라 헤리티지 프린트는 칼 라가펠트의 크로키, '#maxmaragram' 레터링, 일라스트레이터 브루네타의 삽화, 디자이너 마담 베레타의 스케치 등 지금까지 협업했던 여러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완성했다.

MaxMara



SW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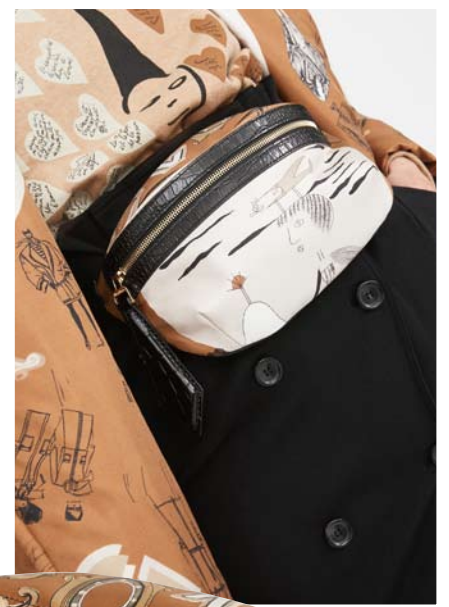
막스마라 헤리티지 프린트는 오랜 시간 유지해온 막스마라의 우아함과 창의성을 담은 것과 동시에 브랜드의 역사를 대변한다.



동시대의 트렌디한 감성을 담은 스웨트셔츠 58만원 막스마라.

BAG

실용적인 벨트백은 스타일에 따라 크로스백처럼 연출할 수 있는 트렌디한 아이템. 역시 막스마라 아카이브에서 영감받아 선보인 막스마라 헤리티지 프린트를 매치했다.



실크와 소가죽을 조합한 벨트 백 78만원 막스마라.

gorgeous Opening Night

막스마라가 서울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파티를 열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패션 피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밤, 그 부드럽고도 강렬했던 열기 속으로.



패션 브랜드의 최신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는 에디터이자 올해 초 어림없이 관계자에게 막스마라의 플래그십 오픈 계획을 전해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탈리아 대표 브랜드가 서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게 되었다. 마팅과 취재로 정신없이 여름을 나던 중, 청담동 명품 거리 한가운데 들어선 직사각형의 철제된 석조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아직 옥외 간판을 적용하지 않았던 터라 궁금해하던 중에, 막스마라에서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9월 3일 본격적으로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다는 반가운 소식. 이탈리아 북부 레지오 에밀리아에 위치한 작은 매장에서 탄생한 막스마라는 이탈리아 대도시를 중심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성공적인 네트워킹 확장에 힘입어 1994년 뉴욕 매디슨 애비뉴에 대규모의 첫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 바 있다. 이에 미국 매체들은 막스마라에 '이탈리언 애포렐 거인(Italian Apparel Giant)'이란 별칭을 붙여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조용한 거인으로 불리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입지를 굳혔다. 패션과 건축, 아트가 어우러진 화려한 청담동 명품 거리에서 블랙과 그레이, 골드 컬러로 이루어진 대담하고 절제된 건축물이 조용한 카리스마를 발하고 있다.

깊어가는 가을, 막스마라의 밤

카메라를 세팅하고 셔터 누를 준비를 마친 사진가들의 시선은 무겁게 있고 부드럽게 등경한 고급 승용차로 향했다. 차 문이 열리자 우아한 차림으로 나선 캐롤린 머피(Carolyn

Murphy)는 뜨거운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여유롭게 인사를 건넸다. 40대가 넘는 나이에도 자연스럽게 빛나는 우아함의 아이콘인 그녀는 최근 베를린 신 박물관(Neues Museum)에서 열린 막스마라 2020 리조트 런웨이에 모델로 나서 컬렉션의 매미를 장식하기도 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막스마라의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빛낸 국내 스타들도 빼놓을 수 없다. 행사에는 영화배우 수현, 최지우, 한지혜, 인플루언서 기은세, 김나영, 가수 헨리, 모델 한혜진, 아이린 등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참석해 현장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막스마라의 2019 F/W 컬렉션을 우아하게 차려입은 스타들은 매장 입구에 마련된 포토월을 통해 사진가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는가 하면, 국내외 디지털 기자들의 영상 취재에도 흔쾌히 응했다. 포토타임을 가진 스타들은 매장 내부에 들어서 새로운 공간을 탐미했다. 이번 시즌 컬렉션을 비롯해 스필라타, 사토리알레 등 막스마라의 다양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물론 이번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특별히 선보이는 서울 익스클루시브 컬렉션을 살펴보고 파티 분위기를 만끽했다. 또 은은한 조명 아래 DJ 키노 키노(Kino Kino)의 부드럽고 독특한 음악 속에서 반가운 얼굴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며 파티를 진심으로 즐겼다. 막스마라의 브랜드 철학이 엿보이는 스토어가 궁금하다면 직접 방문해 이탈리아 패션을 몸소 경험해볼 것. 우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덕분에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막스마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34, 문의 02-511-3935 **에디터 이주이**

STYLING: JESSICA LEE, MAKEUP: JESSICA LEE, HAIR: JESSICA LEE, PHOTOGRAPHY: JESSICA LEE, GROOMING: JESSICA LEE, STYLING: JESSICA LEE, MAKEUP: JESSICA LEE, HAIR: JESSICA LEE, PHOTOGRAPHY: JESSICA LEE, GROOMING: JESSICA LEE



스타들의 런웨이 룩 해석법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연방하원의회장 낸시 펠로시는 붉은색 막스마라 코트를 입어 나를 건드리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막스마라는 이번 시즌 역시 하나의 아이템만으로도 강직한 매력을 풍기는 파워 드레싱에 초점을 맞췄다. 어깨 라인을 강조한 코트와 재킷, 폭넓은 팬츠를 제안하며 깔끔한 실루엣에 지퍼와 포켓 등 유틸리티 디테일 등으로 실용성을 가미했다. 알파카, 캐비, 캐시미어 소재를 다루는 데 능숙한 막스마라는 낙타 머리에 입체감을 주며 질감에 변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이스 컬러 팔레트를 전개하는 막스마라는 이번 시즌 밝고 화려한 옐로 컬러와 블루, 청록색의 룩을 통해 보다 낙관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상을 제안했다. 한편 런웨이에서 8등신 모델들이 선보인 룩을 현실에서는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 막스마라 서울 플래그십 오픈 이벤트에 참석한 스타들이 착용한 컬렉션 키 룩(key look)을 통해 스타일링 팁을 얻어보자. **에디터 이주이**



1 여성미를 강조한 스모킹 컬렉션 턱시도 슈트를 입은 수현, 2 볼드한 액세서리를 레이 어빙에 레오파드 룩을 클래식하게 연출한 김나영은, 3 아이린이 부츠를 살짝 찢는 섀시 민트 패션 신상을 발했다, 4 카미카를 통해 여유로운 인사를 건네는 한지혜, 맥시 길이의 코트와 스카트로 연출한 풍만한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5 경쾌한 에이프릴 룩을 완벽하게 소화한 아이린, 6 파치 컬러의 스모킹 컬렉션 정복슈트를 입고 사선으로 연출했다, 7 스모킹 컬렉션의 클래식한 더블 브래스트 턱시도 슈트를 입은 최지우, 클래식 라인이 돋보이는 튜닉 하나 웨어로 스타일해 우아한 면모를 살렸다, 8 강렬한 레드 슈트를 입고 손 넣었기에 나산 글로벌 앰버서더 마리아 줄리아 프레이저스 마리아모티, 9 행사장에서 만난 캐롤린 머피와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기은세, 지퍼와 고리, 포켓 등 유틸리티 디테일이 실용적인 유틸리티 모양의 클래식한으로 포인트를 줬다.



MaxMara